



HOME > 전국 > 부산영남

##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호국정신 밝히는 추계향사 봉행

이천운 경남지사장 | 승인 2021.10.06 16:09 | 호수 3686 | 댓글 0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가 10월6일 표충사 경내에 위치한 표충사당에서 봉행됐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가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10월21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불교제향과 유교제향으로 함께 진행된 이날 향사는 시작을 알리는 명종 5타, 삼귀의와 반야심경의 불교의례, 정학스님과 범일스님이 집전한 종사영반이 진행됐다. 이어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을 비롯한 참석내빈의 헌다와 헌화로 사명대사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2-1...

포토뉴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

섹션별 최신기사

불교신문TV

[오심

[오심스님의 삼보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조계사 불교대
- 10 [삼보사찰 천리



문의 / 안내 : 0



최신뉴스

- 해인사 '문화재관람
- '불교계 매도 정청리
- [삼보사찰 천리순례
- 영축총림 통도사, 13
- (사)경남파라미타칭
- 영축문화재단, 제9회
- 선각자 '백성욱 박사
- 내 마음과 세상을 밝
- 목련존자 지극한 효
- 한옥목수의 총집수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과 내빈스님들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기허대사의 진영에 헌향하고 있다.



표충사의 향사는 불교제향 유교제향이 함께 진행된다. 사진은 유교 제향 모습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와 백성을 구한 사명스님의 업적은 실로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지만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이 승려라는 신분적 제약에 가려져 후손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사명대사와 호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바르게 선양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인사했다.

중단 "불교계 매도 정청래 의원 공개 사과" 촉구  
 전국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의미 왜곡 정청래...  
 사회&국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청래 의원...  
 인물 [본-말사 주지 인사] 2021년 9월 30일 중...  
 대중공사 [포교현장에서] 청년회의 또 다른 줄...  
 수행&신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긴장...  
 문화 은은한 차함에 담긴 '조계사 예불소리'의...  
 기획&연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  
 출판&문학 선각자 '백성옥 박사' 삶과 가르침...  
 학술&문화재 "이웃에게 큰마음 내는 게 수록...  
 복지&상담 "수제 비누와 삼푸, 이웃과 나눠요"



첫 중단본 《불교성전 - 종장 법어, 홍우원 초기경전, 대승경전, 산어 불교 문부에 걸맞은 디테일 부처님 필담에 쉽게 접근!

법공양 (기획PR)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은 "호국성지 표충사가 사명대사를 비롯한 호국선열들의 업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표충사의 향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을 세운 서산, 사명, 기허 3대 대사의 충렬을 기리기 위해 조선 영조 20년(1744년) 왕명으로 시작된 국가 제향이다. 불교의례와 유교의례가 복합된 형태의 표충사 향사는 봄, 가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556회째를 맞고 있다.

한편 표충사는 이번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호국성지 표충사 호국불교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봉행했다. 표충사성보박물관은 축전이 시작되는 10월6일부터 특별전을 열고 있다. 11월30일까지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의 교지와 교첩이 전시되고 10월16일까지는 사명대사의 금란가사를 친견할 수 있다.

축전 마지막 날인 10월16일 사명대사 다례제가 봉행되고 '삼보사찰 천리 순례단'이 동행하는 호국성지 순례행사가 땀 흘리는 표충비석(표충비각)이 있는 밀양 흥제사와 호국성지 표충사, 사자평, 통도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10월16일 저녁에는 전통 호국음악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영산회상곡 등 호국을 주제로한 불교전통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호국성지 표충사의 호국불교 역사문화 조명 학술대회'가 10월29일 표충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명대사 진영



향사를 마치고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과 내빈들이 성보박물관에 전시된 사명대사의 금란가사를 살펴보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의 교첩과 교지를 전시하고 있다.



사명대사의 가사고리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교신문 전법활동의  
아중물이 되어주십시오**  
후원하러 가기

 **이천운** 경남지사장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